

이주과정을 통해 본 에스닉 네트워크와 노동경험: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초의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혜진\*\*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조선인·한국인의 이주과정
- IV. 한국인 오야카타 중심의 취업구조: 에스닉 커뮤니티의 선별적 생존전략
- V.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이주라는 계기를 통해 에스닉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하며, 이주 동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 일본 고토부키초라는 지역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롭게 정비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력시장이자 간이숙박소 역할을 했던 요코하마 고토부키초에 갑작스럽게 한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서, 초기의 유입자들은 주로 한국의 제주인들로 이들은 지역

\* 이 논문은 필자의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現代日本における韓國人出稼労働者の社會學的分析 - <移動>實踐の中での壽町とコミュニティ・ユニオン-』의 일부를 발췌하여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분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토부키쵸로 유입하여 노동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더욱이 제주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변방으로 인식되어져 왔었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차별의 역사를 경험하는 등 한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응집력을 가지는 고유한 지역성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고토부키쵸라는 이국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취업 부문에서 제주인 중심의 헤게모니를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주변(margin)으로 간주되어 왔던 제주인들의 일본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킨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을 밝혀내는 동시에,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고토부키쵸의 한국인들의 취업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본다.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고토부키쵸라는 장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에스닉 커뮤니티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토부키쵸의 고유한 ‘계속적인 이주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 제약 속에서 에스닉 커뮤니티가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주제어 : 이주, 제주도, 일본, 미등록노동자, 에스닉 네트워크, 일용직 노동시장, 요세바(寄せ場).

## I.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정책, 사회운동, 그리고 연구성과들이 생산되고 있다. 한국이 노동자들의 송출국이었던 시기에는 외국으로의 이주민들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었으나, 한국이 이주민들의 유입국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 연구로, 외국으로 건너가 그 사회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계 이주민(주로 ‘이민’으로 불린다)에 관한 연구는 ‘동포’ 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도 주체로서 인지되지 않았던 외국의 ‘불법’체류 한국인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sup>1)</sup> ‘불법’체류자의 경우, 존재의 ‘비가시성’이 바로 ‘비존재/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존재 가능성'과 연결된다. 비가시화 자체가 지속적인 존재 가능성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권력에 의한 집단적인 단속활동에 의해 '비가시성'의 존재가 그대로 '비존재/무존재'로 전환되면서, 그들이 이주의 행위자(agent)였으며, 이국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했던 주체로서의 역사성이 무화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한국인 '불법'체류자(이후, 미등록노동자로 표기)들의 이주경험을 연구함으로써,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체들의 삶의 내실을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이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인들의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의 움직임이 있었다. 198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여행 자유화'를 계기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발급받기 어려웠던 여권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하여 일본으로 돈 벌이를 목적으로 도항한 사람들 대부분은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의 흐름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대규모의 이주를 보인 곳이 바로 요코하마의 고토부키초(壽町)이다. 고토부키초는 일용직 노동시장과 간이숙박소의 역할을 겸비한 요세바(寄せ場)로 불리는 곳으로, 이곳에 198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존재가 바로 한국인 미등록노동자이다. 초기의 유입자들은 주로 한국의 제주인이었으며, 이들은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토부키초에 들어와 일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변방으로 인식되어져 왔었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도 차별의 역사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응집력을 가지며, 고유한 지역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토부키초 내부에서 제주인들이 주류세력이 되어 한국사회에서의 제주인들의 위치와는 사뭇

- 
- 1)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관한 연구가 드물게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불법체류'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과 한인타운이라는 공간성에 대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인타운이 한인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한 엔클레이브가 아니며, 다양한 집단들의 정체성이 갈등·경합하는 곳이며 사회·경제적 관계들이 교차·혼용하는 다문화공간임을 밝혀냈다(이영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지방노동시장 특성과 지역정체성 탐색: 한인 불법체류노동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3), 2007).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갖게 하고, 나아가 제주인 중심의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주변(margin)으로 여겨져 왔던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해온 과정과 그러한 이주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분석한 후, 고토부키초의 한국인들의 노동 상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미등록 체류상태라는 이중의 제약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성 속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에스닉 커뮤니티 내부의 착취구조를 감수하고 각자 나름의 안전한 생존방식을 선택하는 모습을 고찰하면서,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토부키초라는 장소와 그들의 생활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필자가 2005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일본 가와사키(川崎)에 소재한 노동조합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이하, ‘유니온’)의 한국데스크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수행한 참여관찰과 인터뷰조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는 필자가 ‘유니온’ 활동 가운데 직접 만나게 된 조합원들, ‘유니온’의 한국인 활동가에게 소개받은 전(前) 조합원을 비롯하여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 경험자들까지 포함하여 ‘스노우볼’ 방식으로 진행했다.<sup>2)</sup> 그 결과, 고토부키초를 삶의 공간으로 삼고 살았던 한국인 37명, 즉 제주도 출신자 17명(남성 8명, 여성 9명)과 ‘육지’ 출신자 20명(남성 15명, 여성 5명)의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특히, 고토부키초의 제주인 네트워크와 노동경험에 대한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인용된 인터뷰는 각 개인들의 지역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2) 필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한국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주경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다. 소개를 받아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인터뷰를 거절당하기 십상이었다.

3) 인터뷰 면접자들을 제주도와 육지로 구분한 것은, 고토부키초에서 생활하던 한국인의 주류를 이루었던 ‘제주도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한국인들을 ‘육지사람’이라고 부르며 구별하고 있었던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표식이 되므로 다소 이해에 불편이 따르더라도 면접자들의 발화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문자화했으며<sup>4)</sup>, 본문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은 가명처리를 했음을 밝혀둔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요세바 고토부키초

일본에서 요세바로 불리는 곳은 도시하층노동자들의 집결지라는 면에서 서양의 슬럼가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한편, 인력시장과 간이숙박소가 한 공간에 집중된 곳으로 일본 고유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주로 대도시에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직노동자가 모여서 일거리를 획득하는 요세바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요세바 가운데 특히 규모가 큰 오사카의 가마가사키(釜ヶ崎), 도쿄의 산야(山谷), 요코하마의 고토부키초 등지에 ‘도야(ドヤ)’<sup>5)</sup>라고 지칭되는 간이숙박소가 밀집하여 ‘도야가이(ドヤ街)’를 형성하고, 이것이 일용직노동자들의 생활장소로 이용된다. 요세바에 모여드는 노동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해 고용자 측이 준비해 둔 차량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투입되지만, 노동력의 선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업자들도 다수 존재한다.<sup>6)</sup> 일반적으로 요세바의 취업형태는 공공직업소개소의 이용, ‘직행’<sup>7)</sup>이나 ‘선별적 구인(顔付け)’<sup>8)</sup>, 그리고 테하이시(手配師)<sup>9)</sup>를 통한 고용으

4) 인용문 중에 단어를 보충할 경우는 ( ), 단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경우는 [ ], 필자의 개입이 있을 경우 < >의 문장부호를 사용했다.

5) ‘도야(ドヤ)’란 숙소를 뜻하는 일본어 ‘야도(宿, やど)’를 거꾸로 읽은 속어로, 일용직노동자용의 간이숙박소와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다.

6) 西澤晃彦, 『隠蔽された外部-都市下層のエスノグラフィ』, 彩流社, 1995, 19-20쪽.

7) ‘직행’이란 미리 고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세바에서 따로 일자리를 구할 필요 없이 노동현장으로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8) ‘선별적 구인(顔付け)’이란 비교적 젊고 순종적인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선택되어져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로 구분된다. 반계약 상태인 ‘직행’과 ‘선별적 구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층이며, 테하이시를 통한 취업자는 불안정 취업층이라 할 수 있다.

요세바를 주요 근거지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하층으로 여겨지는 노동 ‘숙련도’, 이별, 이혼 혹은 미혼 등 어떤 이유로든 가족이 없는 ‘단신성’, 노동과 거주지 장소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가속성(假宿性)’을 존재의 기본조건으로 하여, 육체적 중노동을 담당하고 생활이 빈곤하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남성 일용직노동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0)</sup>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요세바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된다. 한편,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응이 요세바 노동자들의 폭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병리현상의 심층지대로 주목받기도 한다.<sup>11)</sup>

1990년대 말에는 가마가사키를 비롯하여 산야, 고토부키초에서는 선별적 구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로 집중되면서 예전에 소위 ‘자유노동시장’이라 불려진 자유로운 취업알선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한편 변화한 요세바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간이숙박소를 주소지로 등록한 생활보호수급자가 증가했다.

<그림 1>에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통칭 고토부키초로 불리는 지역이다. <그림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토부키초는 일본사회의 번영과 활기를 연출하는 장소인 요코하마 스타디움, 차이나타운, 야마시타 공원, 모토마치 상점가 등과 근접하고 있다. 고토부키초는 도시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요불가결한 공간이지만, ‘정돈된’ 도시의 경관을

9) “테하이시(手配師)는 일용직노동자에게 일을 알선하여 그들을 노동현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고용주와 노동자를 중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님푸다시(人夫出し)의 경우는 일용직노동자를 일단 자신의 합바(飯場;현장 작업원의 급식 및 숙박시설)에 확보해두고, 수요에 따라 노동자를 합바에서 노동현장으로 바로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고용주와 노동자를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느 쪽도 중개료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직업이다”(青木秀男, 『現代日本の都市下層 - 寄せ場と野宿者と外国人労働者』, 明石書店, 2000, 46쪽).

10) 青木, 전계서, 30쪽.

11) 조현미, 「재일동포의 거주지역 형성과 민족 정체성의 변화 - 요세바 고토부키를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35(1), 2000, 143쪽.

위해서는 도시의 ‘내부의 외부’로서 단절된다. 그러한 공간이 도시의 내부에서 격리되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그림 1>에 드러난다.



<그림 1> 고토부키초 주변 약도<sup>12)</sup>

본 연구의 주요 공간인 고토부키초는 일본 3대 요세바 중 하나로, 요코하마시 나카구(中區)의 오오기초(扇町), 마즈카게초(松影町), 고토부키초<sup>13)</sup>, 미요시초(三吉町)에 걸쳐 간이숙박소가 밀집해 있는, 면적 250 평방미터의 협소한 공간이다.<sup>14)</sup> 여기에는 122채의 간이숙박소가 밀집해

12) 출처 : (재) 고토부키초근로자복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002.upp.so-net.ne.jp/k-kinroukyou/> (2012/10/7 확인)

13) 여기서 말하는 고토부키초는 지명으로, 협의의 고토부키초를 가리킨다.

14) 2003년도에 ‘나카복지보건센터’가 3대 요세바를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토부키초의 밀집성이 쉽게 확인된다.

<표 1> 3대 요세바 규모 비교

	고토부키초(요코하마)	산야(도쿄)	가마가사키(오사카)
면적/인구	0.06km <sup>2</sup> / 6,737명	1.66km <sup>2</sup> / 33,072명	0.62km <sup>2</sup> / 30,000명
간이숙박소수	107 채	175채	162채
간이숙박소 수용능력	7,443명	7,275명	15,554명

있으며, 약 6,300여명이 숙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토부키초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인원은 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sup>15)</sup> 산야와 가마가사키의 경우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형성된 목조건물과 슬럼가를 토대로 요세바가 형성되었지만, 고토부키초는 전쟁이 끝난 후 새롭게 출현했기 때문에 비교적 역사가 짧은 요세바라 할 수 있다.<sup>16)</sup> 더욱이 고토부키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간이숙박소의 건물주들은 대부분 재일코리언인 것도 고토부키초의 특징 중 하나이다.<sup>17)</sup>

고토부키초의 외국인지원단체인 ‘가라바오노카이(カラバオの會)’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W씨<sup>18)</sup>는 고토부키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토부키초라는 장소는 일본 사회의 문제 덩어리입니다. 일본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제일 처음 나타나요. 80년대까지는 아침에 노동센터(고토부키초 종합노동복지회관)에 모여든 노동자의 움직임만 보면, 그 날의 일본 경제의 경기를 알 수 있었죠. 통계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하듯이 서류를 훑어보거나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면 하루의 경기 변동이 전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아아 ... 과거형으로 말해야겠지요. 80년대, 즉 외국에서 돈을 벌러 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고토부키초에 살게 된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토부키초라는 장소는 일본사회의 문제를 매일같이 민감하게 반영하는 장소였다는 특성이 있네요. 동시에 산야나 가마가사키와는 다르게 고토부키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들이 제일 처음 나타났다는, 항구를 끼고 있는 요코하마라는 특색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외국인이, 일본사회에서 현재화(顕在化)된 이주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가장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여기예요. [W씨, 2008/12/27]

---

출처 : 요코하마시 나카구청 보호과(2003) ‘고토부키 마을-고토부키 지구의 상황(壽のまち-壽地區の狀況-)’

15) 2007년도 고토부키복지센터·고토부키복지플라자 상담실 조사.

16) 青木 전계서, 2000, 63쪽.

17) 고토부키초의 형성에 대해서는 芹澤(1967)과 조현미(2000)을 참조하라.

18) W씨(1935년생, 일본인 남성 활동가)는 본업은 목사이지만, 1987년부터 시작되는 ‘가라바오노카이’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이주민관련 사회운동에 앞장섰으며,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W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고토부키쵸의 인력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건재했으며, 고토부키쵸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돈벌이 장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토부키쵸의 "일본사회의 문제 덩어리"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부로 고토부키쵸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라는 인식이 W씨에게서 보여진다. 고토부키쵸는 고도경제성장기로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일용직 노동시장이 팽창하였고, 그 후 버블경제 및 공공투자, 서비스산업에 의한 관련공사의 발주가 건설업의 일용직 노동력 수요를 창출했다. 1990년대 직전까지는 석유위기에 의한 불황 등 몇 번씩 불황을 경험하면서도 일용직 노동력의 수요가 존재했다.<sup>19)</sup>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특히 후반 무렵에는 공공투자부문이 삭감되어 건설공사가 격감했다. 그 위에 노동집약형 산업인 건설업에서도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항만노동의 경우도 하역작업에서 컨테이너 사용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구인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구직자수도 감소한 것이다.<sup>20)</sup>

고토부키쵸의 일용직노동자들의 고령화에 의한 현역 노동자수의 감소로 생긴 틈새는 젊은 일본인 노동자로 보충되지 않았다.<sup>21)</sup> W씨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일용직노동자의 부족분을 메우고 유지된 것은 일용직의 이주노동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고토부키에서 사라졌을 때 고토부키의 일용직노동자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한다.<sup>22)</sup> 한편, 고토부키쵸의 이주노동자들의 수를 더욱 격감시킨 것은 일본경제의 불황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불법체류자 반감(半減)계획'의 영향이 컸다. 2003년 당시 일본정부는 '불법'체류자 22만 명, '불법'입국자는 3만 명이 존재

19) 青木, 전계서, 2000, 38-39쪽.

20) 青木, 위의 책, 2000, 40쪽.

21) 青木秀男, 「寄せ場は何處へ」, 青木秀男編著, 『場所をあける! 寄せ場/ホームレスの社會學』, 松籟社, 1999, 262쪽.

22) 요세바의 일용직노동자의 수의 감소는 노동자파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변화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종래 특수 업종에만 한정되었던 파견업의 범주를 제조업까지 확대시켜, 파견업자들이 일용직노동력 풀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전화로 불러낼 수 있게 되었다. 요세바가 일용직노동자들을 확보(보호의 측면도 있음)하고 있던 것과 달리 일본사회 곳곳에서 일용직노동력을 불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요세바로 찾아 들어가는 노동자들을 드물어졌다.

하며, “그 대부분이 불법취업 상태로 종사하고 있으며, 흉악범죄에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불법체류자의 존재가 외국인조직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동년 12월 ‘범죄대책자료회의’에서 책정한 ‘범죄에 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5년간에 불법체류자를 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공권력으로부터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던 고토부키초에도 빈번하게 단속이 행해져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강제송환 되었다.<sup>23)</sup>

현재는 일본인 일용직노동자는 물론, 이주노동자의 모습도 사라진 고토부키초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바쁘게 오가고 있다. 고토부키초의 간이숙박소에는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이 된 전직 일용직노동자들과 장애인들이 간이숙박소를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고 있다. 한편 간이숙박소를 유스호스텔로 개조하여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고토부키초 곳곳에 ‘마을만들기’ 계획이 벌어지는 등 암울한 이미지의 고토부키초를 쇠신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고토부키초의 일용직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자 간이숙박소로서의 장소성(placeness)이 점차 고령자, 장애인, 관광객 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이 고토부키초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았었다는 사실은 거의 잊혀져가고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요세바 고토부키초에 이주노동자가 집주하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본인 연구자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사회구조론적 관점’과 한국인 연구자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에스닉 네트워크론적 관점’으로 양분된다.<sup>24)</sup>

23)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에 의해 ‘불법’체류자는 2004년 1월 219,418명에서 2009년 1월 113,072명으로 48.5%가 감소했고, ‘불법’입국자는 2004년 1월 3만명(추계)에서 2009년 1월 1만5천명에서 2만3천명(추계)로 감소했다. 출처 : 법무성 입국관리국,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 실시결과에 대해서’(2009년 2월 17일자)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press\\_090217-1.html](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press_090217-1.html) (2012/10/3 확인)

24) 일본인 연구자들은 요세바라는 일본적 공간에 이주노동자(특히, 한국인노동자)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제약 속의 주체성의 발현’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이주노동자의 도시하층<sup>25)</sup>으로의 분리(segregation) 과정

노동시장의 분할현상은 글로벌한 사회적 지리의 변화와 함께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이주노동자들은 세계도시의 하층구조로 재편된다.<sup>26)</sup> ‘세계도시화와 이주노동자’ 가설을 토대로 요세바와 이주노동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아오키는 이주노동자가 요세바의 간이숙박소에 밀집하여 살고 있는 현상 자체가 일본의 요세바 중에서도 고토부키초에서만 보여지며, 이것이 바로 요코하마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의 도시하층 분리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용직노동자의 요세바이며 사회적 빈곤층의 체류지인 고토부키초를 다민족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로 규정했다.<sup>27)</sup>

패전 후 요코하마항의 매립지에 형성된 고토부키초는 재일코리언이 간이숙박소의 경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무역항인 요코하마라는 다민족 접촉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의 증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사회적 조건의 첫 번째는 향만노동, 건설노동 등의 중노동을 담당하던 일본인의 감소분을 메우는 형태로 이주노동자가 일용노동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간섭하지 않는 고토부키초의 분위기가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에게는 적합했으며, 세 번째는 고토부키초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인 질서

---

출현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인 연구자들은 한국인노동자가 밀집하는 장소의 하나로 고토부키초에 주목하고 있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일본인 연구자들과 한국인 연구자들의 분석관점이 상이한 것은 각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연구 분석 상의 자료 수집 범위가 각 연구자의 에스니시티(혹은 에스니시티라는 사회적 자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보여준다.

- 25) 도시하층이란 도시의 ‘최저변’에 있는, 계층적·공간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도시하층은 가혹한 수탈과 차별의 요건이 동시에 부과되는 ‘사회 외부’의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공간을 의미한다(靑木, 2000: 13).
- 26) Sassen, Saskia(1988), *The Mobility of Labour and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ssen, Saskia(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7) 靑木, 2000, 전제서.

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고토부키 내부에서의 일용직노동자들의 충돌, 폭동 등이 다른 요세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및 감시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한 폭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도시하층으로의 분리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고토부키초에서는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간이숙박소에 살면서 일본인과 함께 노동을 하는 형태의, 하층 일용직노동 분야의 다민족적 경쟁·공존관계가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요세바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요세바 형성의 경위뿐만 아니라 도시의 하층지대, 더욱이 도시권의 산업·노동시장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고토부키초의 변천과 구조는 고유성을 지닌 요세바인 동시에, 패전 후 일본의 도시부흥으로부터 오늘날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하층, 나아가 도시 자체의 변천을 표현하는 범례가 되어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세계도시화의 기본적 동향에 부합하는 요코하마 버전의 도시하층의 동향을 읽어낼 수 있다.<sup>28)</sup>

또한 야마모토도 이주노동자의 하층으로의 '격리(enclosure)'로서 고토부키초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전술한 아오키의 이론과 동일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일본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제약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토부키초로 연결시키는 요소임을 지적했다.<sup>29)</sup> 미등록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빌릴 수 없고, 취업비자를 취득 못한 '자격 외 취업' 상태가 경험하는 일자리를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고토부키초로 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더욱이 고토부키초의 외국인들이 의존하여 활용하고 있는 관계성은 그들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모국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완결된 에스닉 환경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일본사회와의 접점이 점점 약해져 간다.

28) 青木, 전계서, 2000, 75-76쪽.

29) 山本薫子, 「國境を超えた『困い込み』-移民の下層化を促し、正当化するロジックの検討に向けて」, 狩谷あゆみ編, 『不埒な希望-ホームレス/寄せ場をめぐる社會學』, 松籟社, 2006; 山本薫子, 『横浜・壽町と外國人-グローバル化する大都市インナーエリア』, 福村出版, 2008.

노동과 소비 이외에 일본인과의 접촉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지속해나가는 외국인들도 다수 존재했다.<sup>30)</sup> 이러한 상황을 취업과 거주가 일체화된 도시하층으로의 ‘격리’로 야마모토는 분석하고 있다.<sup>31)</sup>

## 2) 에스닉 네트워크에 의한 커뮤니티의 형성

고토부키쵸로 한국인노동자가 밀집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인 연구자들 대부분은 에스닉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다.

조현미는 고토부키쵸의 형성과정과 재일동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뉴커머<sup>32)</sup> 한국인이 고토부키쵸로 들어온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재일동포와 관련이 있다는 점과 고토부키쵸 내부의 생활과 취업 면에 있어서도 그 관계는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변화하는 뉴커머 한국인과 재일교포의 서로에 대한 의식을 고찰했다.<sup>33)</sup>

정진성의 경우는 합법적 이주와 ‘불법’체류 노동자를 포함하여 뉴커머 재일한국인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오쿠보의 코리아타운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재일한국인 뉴커머 집단 형성의 맥락에서 고토부키쵸를 다루고 있다. 고토부키쵸의 한국인 집단에 대해서 “노동을 위해 입국하여 안정적인 자족적 집단을 이루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존재형태” 구성하며, 이 뉴커머 집단은 일본사회에서 노동을 하므로 일본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연결이 올드커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sup>34)</sup>

30) 山本 전게서, 2006, 187쪽.

31) “일용직노동자의 높은 임금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비춰졌으며, 단기간의 돈 벌이를 전제로 고려할 경우, 비교적 고임금이 지불되는 고용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하층으로의 이동’이라는 담론 전개가 이주노동자가 저렴하고 대체가능한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담당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불가시화시킬 수도 있다”(山本, 전게서, 2006, 193쪽).

32) “일반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 1세와 그 후손들을 Old Comer, 해방 이후 일제와는 관계없이 비교적 최근에 건너간 사람을 New Comer라 한다”(조현미, 전게서, 2000, 156쪽).

33) 조현미, 2000, 전게서.

34) 정진성, 「재일한국인 뉴커머 형성과정과 집주지역의 특징 -오쿠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0, 2011, 313-354쪽.

조현미와 전진성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고토부키쵸의 뉴커머 한국인들과 재일동포들의 관계이다. 일본인 연구자나 요세바 활동가들에 관한 분석에서도 고토부키쵸의 간이숙박소 경영자의 대다수와 테하이시의 상당수를 재일동포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노동자의 고토부키쵸에서의 노동이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자주 눈에 띈다.<sup>35)</sup> 그러나 고선회는 한국인이 재일동포 친척을 의지하여 일본에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었던 예는 다수 존재하지만 제주도 출신자는 1987년까지, 타 지역의 한국인은 1988년까지는 고토부키쵸에 일용직노동자로 들어와서 일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다.<sup>36)</sup> 더구나, 고토부키쵸의 간이숙박소 경영자 중에 제주도 출신자는 거의 없으며, 이 때문에 제주도출신 노동자들의 고토부키쵸 유입은 재일교포 친척에 의한 연고가 아니라, 일본에서 이주노동을 하던 중에 고토부키쵸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 노동·생활하고 있던 동향인들에게 고토부키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sup>37)</sup>

이처럼 고토부키쵸와 한국인노동자의 접촉을 제주도의 동향네트워크로 설명한 고선회는 서로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으로 이해되고 있는 요세바 사회에 지연·혈연 네트워크를 통하여 등장한 제주인의 존재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선회는 니시자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고토부키쵸에 온 제주인의 이질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38)</sup> 일반적으로 요세바는 익명사회로 불리며, 요세바 노동자는 요세바에서 요세바로, 요세바에서 함바로 유동적인 생활을 하며, 개인적인 경력에 대해 깊이 묻지 않는 것이 요세바 사회의 철칙이다. 요세바 노동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규범은 역설적으로 자신과 다른 요세바 노동자를 같은 종류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 그 규범은 요세바 사회에서 ‘서로의 자유가 상실되어 요세바 내부에 새로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를

35) 駒井洋, 『外國人労働者問題の現段階』, 『寄せ場』 11, 1998, 176-192쪽. 青木, 전게서, 2000.

36) 高鮮徽,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義』, 明石書店, 1998.

37) 山本, 전게서, 2008, 32쪽.

38) 西澤, 전게서, 1995, 112쪽.

유지 하는 것'이다.<sup>39)</sup> 한편, 제주인은 도일 당시부터 재일제주인이라는 지연·혈연 네트워크를 의지했으며, 고토부키초에 들어온 후에도 지연·혈연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정보가 전해져,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도항 전부터 방을 구하고 확실한 직장까지 마련해두었다. 제주인은 제주도의 지연·혈연 네트워크를 고토부키초에서 활용하고 재생활 뿐만 아니라 고토부키초에서 만남,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시켜 커뮤니티를 이루었다.<sup>40)</sup> 따라서 제주인에게 고토부키초는 일반사회와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가 이동해 와서 생활하는 하나의 장소이며, 고향과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에게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은 소득 증가와 외국에서의 생활경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찬스'로 파악되고 있었다.<sup>41)</sup> 즉 한국인노동자들이 고토부키초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분석시각

아오키와 야마모토에 의한 요세바에 대한 구조론적 파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논리로는 요세바 기능의 쇠퇴, 특히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고토부키초의 이주노동자의 감소는 설명되기 어렵다. 아울러 그 밖의 요세바, 특히 오사카에는 예전부터 다수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의 가마가사키에 뉴커머 한국인노동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간헐적으로 가마가사키에서 노동하는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보고가 있을 뿐이다.

또한 고선희의 분석에서는 '고토부키초의 한국인 커뮤니티'를 자립적인 실체로 이해하고 완결된 한국인 사회로서 묘사하고 있지만, 일본사회라는 구조적인 관점이 누락되어 있어 그들의 생활을 일본사회로부터 독립/격리로서 해석하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이 고토부키초에서의 생활을

39) 高鮮徽, 전거서, 1998, 112쪽.

40) 高鮮徽, 위의 책, 1998, 113쪽.

41) 高鮮徽, 위의 책, 1998, 167쪽.

‘찬스’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사회의 요세바에 대한 의미부여 -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일본사회에서 각인된 요세바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지 않다 - 보다는 실질적인 측면, 즉 노동, 주거 등 눈앞의 이익의 근거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호스트 사회의 의미부여 보다는 자국의 가치관이 훨씬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된 이주자의 경우는 일본인의 공간감각과 유사한 의미부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십 년 이상을 살아온 한 노동자는 “고토부키초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정영갑<sup>42)</sup>, 2008/9/26]”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고토부키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한국인노동자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고토부키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토부키초의 생활의 편리성,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한국인들과의 교류 등을 이유로 한국인노동자들은 고토부키초에서의 생활을 지속시켰다. 따라서 고토부키초는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의 각자의 전략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본론에서는 한국인노동자들의 고토부키초로의 이동과정과 고토부키초에서의 취업구조에 대해서 분석할 것인데, 주체들의 구조적인 제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토부키초에서의 한국인노동자들의 취업구조의 경우, 한국인노동자들이 고토부키초로 유입되기 이전에 요세바에는 이미 ‘중층적 하청구조’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노동현장의 서열관계도 확립되어 있었다. 고토부키초의 한국인노동자들은 기존에 있던 요세바의 ‘중층적 하청구조’로 편입되었으며, 취업과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 노동층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구조에 차별적으로 편입되면서도 주체들은 자신의 생활전략을 구가한다.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탈산업화사회의 에스니시티의 특징에 관한 검토를 한 히구치의 논의가 설득력을 가진다.<sup>43)</sup> 그는 “재(財)의 공급자로서의 커뮤니티의 경쟁력은 저하하고

42) 정영갑씨는 1950년생으로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988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동경, 가와사키, 요코하마 등지에서 미등록노동자로 생활했다.

43) 樋口直人, 『個人戰略とエスニシティ』, 『一橋論叢』 121(2), 1999, 338-352쪽.



있으며, 이제는 시장과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개인에게 커뮤니티는 필요한 재(財)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고, 시장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반비례하여 에스닉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는 저하된다”라고 지적하며, “에스닉 집단에의 귀속이 개인의 생활상의 요건인 정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sup>44)</sup> 이 논의처럼 오늘날 커뮤니티는 개인의 선택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고토부키초에서 생활하게 된 한국인들은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현상에 대해 그들이 주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그들의 에스닉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의 내실이다. 미등록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고토부키초의 한국인들은 강제송환의 위험을 안고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인들의 에스닉 커뮤니티를 생활의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해 왔다. 그곳에는 취업을 둘러싸고 개인과 에스닉 커뮤니티 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개인전략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여기서 개인전략이란 ‘고토부키초의 제주인들이 제주인 중심의 커뮤니티에 의한 속박을 감수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에스닉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후, 본론에서는 고토부키초에 한국인들이 이주해 오는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주를 유지하는 사회적 네트워크’<sup>45)</sup>가 가능했음을 밝혀내고, 개인전략이라는 분석시각으로 요세바의 중층적 하청구조가 한국인들의 취업구조를 재생산해내고 있으며, 그 속에 편입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에스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취업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고토부키초를 인지해가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고토부키초의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도 ‘계속적인 이주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44) 樋口, 앞의 책, 1999, 339쪽.

45) 樋口直人, 「國際移民の組織的基盤-移住システム論の意義と課題」, 『ソシオロジ』 47(2), 2002, 55-71쪽.

### Ⅲ. 조선인·한국인의 이주과정

#### 1. 제주인의 도항에 관한 역사적 경위: 제주도의 주변성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는 1876년 조선 개항을 계기로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소수의 조선인들이 일본인 행세를 하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sup>46)</sup> 제주인들의 경우 제주도 해녀가 경술국치 이전부터 일본에서 이주노동을 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47)</sup>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호황을 이룬 일본 공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일본의 기업주들은 노동효과가 크고 저렴한 조선의 농촌인력에 주목했다.<sup>48)</sup> 1914년에는 오사카방직공장의 사무원이 직원모집을 위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했다.<sup>49)</sup> 한편, 오사카-제주도간의 정기연락선 개통은 두 장소의 거리를 시간적, 공간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단축시키는 대사건이었다. 1922년에 아мага사키 기선부(尼崎汽船部)의 ‘군대환(君が代丸)’이 식민지의 변방인 제주도와 일본의 공업도시인 오사카를 연결한 후, 여러 곳의 기선회사가 참여함으로써 제주인의 일본 도항이 한결 용이해졌다. 그 결과 일본으로 도항하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여, 1933년에는 도항자가 29,208명, 귀환자가 18,062명이었고, 1934년에는 도항자와 귀환자를 합한 수가 약 5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1/4에 달하게 된다.<sup>50)</sup> 제주인의 도항 결과, 제주도의 경제상황은 종래의 자급자족적 농업경제가 파괴되어 점차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탈바꿈되었다.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던 ‘바다를 걸친 생활권’은 일본 패전 후, ‘국경을 걸친 생활권’으로 변화된다.<sup>51)</sup> 제주도 인구의 1/4이

46) 정혜경, 「일제 강점기 ‘조선부락’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 국사편찬위원회, 『일본한인의 역사(하)』 재외동포사총서11, 2010, 186쪽.

47) 栢田一二, 『栢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1976, 83쪽.

48) 정혜경, 전계서 2010, 192쪽.

49) 이 시기부터 근대 공업노동자로서의 제주인의 일본 도항이 개시되었다(栢田, , 전계서, 1976, 83쪽).

50) 그 인원의 80%가 경제활동 인구였기 때문에(栢田, 1976 : 111) 일본 도항으로 인한 제주도 내부의 노동력 부족상황은 심각했으나, 송금에 의한 일본 화폐 유입으로 제주도 전체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栢田, 전계서, 1976, 114-115쪽).

일본에서의 이주노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경제와 제주도 경제가 그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sup>52)</sup>, 국경선으로 인해 왕래가 제한되더라도 한번 형성된 ‘수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되고 있었다.

해방 후 제주도에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귀환했으나 한반도의 경제적 혼란, 정치적 불안으로 1946년부터 다시 일본으로 도항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sup>53)</sup> 그러나 1946년의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 : General Headquarters)의 지령에 의해 조선인 귀환자의 일본 재 도항이 엄중히 규제되면서,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밀항’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도항하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의 4·3사건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동란을 피하기 위한 ‘밀항자’도 상당수 존재했다.<sup>54)</sup>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밀항’은 목숨을 건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국경의 통제 관리와 맞선 생존을 위한 실천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결합이 강하고 공동체적 특성을 보이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제주인 덕분에

51) 梶村秀樹, 「定住外國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思想』 734, 1985, 23-37쪽.

52) 玄武岩, 「密航・大村收容所・濟州島-大阪と濟州島を結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 『現代思想』 35(7), 2007, 165쪽.

53) 玄武岩, 앞의 책, 2007, 165쪽.

54) “해방 후 제주도로 돌아간 이들도 많았지만 식량난, 콜레라, 정치적 혼란 등을 피해 1947년까지 3,000명 정도가 다시 일본으로 도항했으며, 그 수단은 주로 밀항이었다. 그리고 1948년의 제주 4·3사건은 일본으로의 도항에 박차를 가했다. 예를 들면, 1948년 6월~8월 사이에 에히메(愛媛) 현에 밀항한 조선인 290명 중 281명이 제주도 출신자였다. (중략)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일본으로 정식 입국이 가능했지만, 수속이 번잡하여 밀항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70~1974년 사이의 한국인 ‘불법’ 입국자는 740명이었는데, 그 중 제주 출신자가 608명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1980년대에도 여전히 밀항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출신자였는데, (중략) 『아사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1984년도 밀입국자는 412명이고 그 중 대부분이 한국 출신이며, 나가사키의 오무라(大村)수용소에는 여성 19명을 포함한 75명이 송환대기 중인데, 이 중 95%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밀항자 중의 71%가 오사카에 잠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양인실, 「일본 TV 영상물의 재일제주인 표상」, 『일본비평』 8, 2013, 84-85쪽).

제주도가 발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60년대부터 제일제주인은 제주도사회에 방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sup>55)</sup> 제일제주인 1세대들은 도로, 전기, 상하수도의 개설 등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물론 농촌개혁사업, 촌락발전, 교육, 문화 등 다방면으로 기증과 지원을 했다.<sup>56)</sup> 제주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제주도사회의 공적 공간이 제일제주인의 지원으로 인해 발전해 가는 것을 체감했으리라 짐작된다. 당시 제주인의 인식 속에 제일제주인은 ‘유복한 나라에서 온 손님’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제일제주인뿐만 아니라 ‘밀항’해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까지도 제주도 마을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sup>57)</sup> “개는 정말 촌에서 클 땐 아무것도 아니었지. 지금은 동창생들 앞에서도 쩡쩡하지. 그러니까 돈이 큰 거야”라는 실감, 그리고 “밀항으로 일본에 가서 번 돈으로 5년 후에 고향에서 두 번째로 큰 밭을 샀다”는 근린에서 접하게 되는 가시적인 성공담은 제주인들의 일본을 향한 욕망을 높여갔다.

더욱이 제주인 대부분은 일본에 가족 혹은 친척이 있기에, 가족과 친척이라는 개인 레벨의 연결고리가 제주도와 일본을 접속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sup>58)</sup> 그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물자가 부족한 제주도의 가정에 일본으로부터 식품, 의류, 전자제품, 약품 등이 보내져 왔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보내줬다”는 제일제주인과 그들이 보내온 일본제품 및 기부에 의한 제주도사회의 가시적인 변화 속에 성장한 제주인들은 일본을 그들의 생활세계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주인의 멘탈리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민송출 커뮤니티에서 커온 아이들은 그 동족과 이웃들의 생활을 통해 해외에서 일하는 체화된 행동양식을 몸에 지니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sup>59)</sup>

55) 제일제주인의 제주도에 대한 기부와 투자는 제주도정부로부터의 요청이기도 했다.

56) 그 흔적으로 제주도의 각 읍, 면, 동사무소에는 제일제주인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기념비와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57) 조성윤, 「제주도에 유입된 일본종교와 제일교포의 역할」, 『탐라문화』 27, 2005, 93쪽.

58) 유철인,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33(2), 2000, 374쪽.

59) 佐久間孝正, 『変貌する他民族國家イギリス-「多文化」と「多分化」にゆれる教育』,

필자가 제주도 출신 면접자들에게 왜 한국의 육지부로 가지 않고 일본을 선택하게 되는지 물었을 때, “몰라. 우린 옛날부터 서울로 갈 생각은 좀처럼 안 했던 것 같아. 육지 보다는 일본에 가는 생각을 먼저 했지”라는 대답을 대부분 해주었다.

제주인들의 역사성으로 판단해보면 한국의 ‘육지’부와 일본 양쪽 모두 자신의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제주도에 대한 국가폭력, 즉 1948년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군대와 경찰력의 반공주의에 입각한 초토화작전으로 양민이 대량학살당한 제주 4·3사건은 냉전체제 형성기에 공산주의 세력의 봉쇄와 관련하여 근대적 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행된 국가폭력의 산물이었으며<sup>60</sup>), 그 후 50년간 그 폭력의 진실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sup>61</sup>) 4·3사건에 관한 제주인들의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과 그것에 관해서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억압적 상황, 자의든 타의든 공산주의와 관련 없음을 과도하게 표명해야 하는 상황<sup>62</sup>) 등 제주도에 대한 차별의 정치가 가혹했기에 오히려 타국인 일본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펼쳐질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국경선은 강력한 경계선이지만 제주인들은 국경선 이외의 또 다른 경계선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즉, 그것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교하면 국경선이라는 물리적인 경계선이 그만큼 높지 않았던 듯하다.

더욱이 1950년대의 제주도는 정체와 소외 속에서 공업화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0년대는 정부의 관광개발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정비와 기근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sup>63</sup>), 1980년대가 되어서

明石書店, 1998, 161-162쪽.

60) 김민환, 「동아시아 변경 섬의 지정학과 냉전체제 성립기 국가폭력 발생의 구조」, 『달라문화』 46, 2014, 128쪽.

61)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 4. 3의 담론정치」, 『제주 4. 3 제 50 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1998, 2쪽.

62) 한국전쟁 시기에는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군대에 지원하는 제주인들도 있었다. 1960년대에 일본에서 성공한 제일제주인들은 제주도에 투자하면서, 한국정부가 자신들에 대해 가진 이미지, 즉 공산주의나 북조선과 연결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63) 文京洙, 『濟州島現代史－公共圏の死滅と再生』, 新幹社, 2005, 94-138쪽(玄武岩,

야 비로소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한다.<sup>64)</sup>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생활을 위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이들을 끌어당긴 장소는 발전과정 속에 있던 한국의 도시 보다는 많은 제주인에게 여전히 ‘동경의 장소’였던 일본이었다.<sup>65)</sup>

1980년대부터는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제주인의 재일제주인에 대한 물질적 원조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고, 재일제주인의 특별한 이미지도 약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불황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깊은 인연을 의식하고 있던 재일제주인 1세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재일제주인에 의한 기증과 기부가 현격히 줄어들고 상업적 투자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66)</sup> 점차 재일제주인과 현재의 제주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운데, 1980년대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1982년 7월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해외여행이 개시되었고, 1985년 이후에는 ‘친척방문비자’에 의해 합법적인 도향이 시작되었다.<sup>67)</sup> 그 이후 1989년의 ‘해외여행완전자유화’에 의해 해외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재일제주인과의 돈독한 관계는 이전보다 희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주인들의 역사성을 담지한 멘탈리티는 일본을 자신과 친밀한 장소로 상상하게 했고, 그 상상력—특히, 그것이 집단적일 경우—이 이동이라는 행위의 토대가 되어 소득 증가와 일본에서의 노동 기대를 둘러싼 관념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68)</sup>

---

앞의 책, 2007, 170쪽 재인용).

64) 伊地知紀子, 『生活世界の創造と實踐—韓國・濟州島の生活誌から』, 御茶ノ水書房, 2000, 103-104쪽(玄武岩, 전게서, 2007, 170쪽 재인용).

65) 玄武岩, 앞의 책, 2007, 170쪽.

66) 조성윤, 앞의 책, 2005, 96쪽.

67) ‘밀항’이 아니라 ‘친족방문비자(한국에서는 흔히 초청비자라고 불려졌다)’로 당당하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마을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것은 쉽게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68)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アルジュン・アパデュライ, 門田健一譯『さまよえる近代』, 平凡社, 2004).

## 2. 고토부키초를 향한 제주인의 이주과정

이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요코하마 고토부키초로의 한국인의 유입과 밀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자.

### 1) 고토부키초를 선택하는 이유

제주인들이 고토부키초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사카에 정착했던 제주인들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한결 명확해진다. 왜 제주인들은 일본에서 제일 큰 재일제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오사카가 아니라 요코하마 고토부키초를 향하게 되었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는 임길동씨(1936년생, 제주도남성, 1973·1979년 밀항, 1985년 친족방문비자로 도일, 1987년부터 초과체재, 2001년 자진귀국)와의 인터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동경은 별로 안 그런데. 대판(오사카)은 그런 사람들 모아서 일하는데, 월급 관계로 십 원 차이로, 이십 원 차이로 직장 탄 데 옮겨버리면, 그 당시 걸려와. 이짜 주인이 말해버려.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이 많아. 동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식당 일이니까 그런 게 없다고. 대판에서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월급 작다고 간간 사람은 벌써 걸려서 와(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밀항으로 갔으니까 친척관계는 안 되잖아. 고향도 틀리고. 같은 제주도 사람이라도 밀고를 해서 잡혀오고 그랬지.(임길동, 2009/08/10)

오사카의 공장과 비교하여 “동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식당 일이니까 그런 게 없다고”라고 언급하면서, 임길동씨는 영업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밀고’의 관계를 지적했다. 오사카의 재일제주인들이 밀집한 곳에는 많은 수의 작은 공장들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공장을 옮기는 것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지만, 한국식당들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직원이 다른 식당으로 옮기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밀항선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 동네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걸려 와서 다시 밀항 가다가 배에서 죽어 버렸어(하선부 필자강조). 부산에서 그런 뉴스가 쫓잖아. 큰 화물선으로 가다가,

갈 때는 짚 실어 왔거든, 올 때는 공으로 오게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땅에 가서 내리지 못 한거야. 경비가 심하니까 내리지 못한 거지. 그래서 다시 갔거든, 그 놈 소개로 같이 갔는데, 나랑 같이 갔던 놈이 대판에서 그런 식으로 걸려나서, 또 재차 다 오다가, 여섯 명이 올 때, 빈손으로 오게 되니까, 배가 짐이 좀 차야 빠르거든. 그래서 물탱크 속에 숨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버리니까, 그 알선자가 가버리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주방에 있는 놈이 하나 안다는 거야. 밥을 갖다 줘야 되니까. 딱 두개[두명]만 알고 오게 되었는데, 큰 배 화물선에 숨겨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디 나가버린 후에 물을 그냥 담아 내버린 거야. 물탱크 안에. 모른 거지. 나중에 부산에 오니까. 그 알선자는 물탱크에 물을 담았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일본에서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찾는다 아냐. 삼 개월이 되도 소식 없고, 일본에 도착했으면 잘 왔다는 연락이 있을 텐데, 연락이 안오니까, 나중에 우리 고향 선배가 부산지구대에 한 명 대장으로 있었어. 그 친척 관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창도 하나 끼여 있었는데, 동창하고는 처남매부야. 그러니까, 물 먹고 죽은 거지. 찾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조사 한거지. 인제 며칠 날 하고 나왔느냐,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물탱크 개죽음 당한 사람이 많아. 그게 오래 되었어. 그게 우리 밀항 다닐 때 이야기니까.[임길동, 2009/08/10]

이 밀항선사건에 대한 기억은, 밀항에 수반되는 위험성과 더불어 일본에서의 제일제주인은 체류비자를 가진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온 제주인들은 그들에게 고용된 체류비자를 가지지 못한 ‘불법’적인 존재였음을 환기시킨다. 그 때문에 이 사건은 체류자격으로 인한 불균등한 관계성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다.

“제주도 출신자가 다수를 이루는 ‘밀항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제일 1세의 아래에서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혀 일본사회에 적응해갔다. ‘(외국인)등록’이 없는 ‘밀항자’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했으나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제주도 마을’은 이러한 ‘밀항자’가 일본생활에 익숙해져가기 위한 절호의 장소”<sup>69)</sup>였기 때문에 오사카는 새롭게 도항하는 제주인에게 이주노동의 발판이 되는 장소였다. 한편으로는 농밀한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속박과 불균등한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단지 참고 견뎌야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주자들은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도 끈질기

69) 玄武岩, 앞의 책, 2007, 170쪽.



게 살아왔다.

일본에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을 의지해서 일본으로 건너갈 선택을 하지 않고, “관계도 멀어졌고,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집에 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일교포 친척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으나 연락처를 적은 메모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양성순씨(1949년생, 제주도남성, 1988년 도일, 2005년 강제송환)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부산국제공항을 갔을 때, 재일교포인 육촌 형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일본에 가기 전에 오사카에 사는 육촌형을 만났어. 부산 국제공항에서. 그 사람은 제주에 골프치러 다니고,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일본 가게 되었냐고 해서 그냥 일하러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어디 아는 데 있냐고 해서, 아는 데는 없고 성당 신부님이 가고시마(가고시마현에 있는 성당) 소개해줘서, 거기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거기는 가봐도 일자리가 없고 금방 잡혀온다고 그러더라. 촌에는 외국사람 가면은 신고해버린다고. 가지 말라고 함이다. 택시타고 이제 오사카공항에서 시내까지 내려가는데, 그 당시 택시로 갈 때 보니까 만 오천엔 정도 나오는 거 같애. 나 지금도 그 말도 안 잊어버려. 기분 나쁘데. “니넨 택시타지 못한다”그런 말 하는 거야. 만 오천엔 나오니까 비싸니까 우린 택시 타지 못한다는 거지. 하고 많은 말 중에 그땐 내가 39살 때 일인데, “네” 하고 대답만 했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택시 타고 왔는데, 고기라도 보내줘서, 육뽀 같은거 해서. ... 그 당시 우리 육촌어머니가 서귀포에 살았어. 대신 거기에 보내주고 그랬는데, 나 그 말 아직까지 잊지 않았어. 그 말은 돈 없는 놈이 택시 같은 거 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지. 아, 기분 나빠 가지고.(양성순, 2009/08/07)

양성순씨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인과 그들의 재일교포 친척과의 거리감이 표면화된다. “니넨 택시타지 못한다”는 육촌 형님의 발언에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양성순씨는 육촌어머니에게 ‘육뽀’를 보냄으로써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다. 제주인과 재일제주인과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는 재일교포 친척이 이주과정에서 믿음직한 조력자라고 여길 수 없게 하는 요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사카에서 고토부키쵸로 이주해온 미등록노동자와의 대화에서 “1990년대는 오사카는 단속이 심해서 길 다니는 것도 위험지만, 고토부키쵸는 경찰의 개입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사카

의 가마가사키에는 일용직노동자들의 폭동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가마가사키를 감시하기 위한 경찰들의 순찰과 보안카메라의 설치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토부키초가 점차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갔다.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토부키초는 재일교포와의 관계가 서로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일본사회의 공권력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래서 새롭게 도항하는 제주인들에게 고토부키초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유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2) 고토부키초로의 이주과정

제주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고토부키초에 들어오고 있었는지 고찰해보자. 김진언씨(1944년생, 제주도남성, 1988년 도일, 1988~1994년 단기체 재비자로 왕래, 1994년부터 초과체재, 2009년 강제송환)는 고토부키초로의 이주과정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기 교포가 있기 때문에. 침에 그 교포네 집으로 온다 하고, 그 집 전화번호를 써주고,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라. 제가 언제 가니까, 만약에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전화가 오면, 온다고 대답을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와야 합니다.[김진언, 2009/07/02]

제주인의 고토부키초로의 유입은 재일제주인 네트워크로부터 그리고 고토부키초에 먼저 들어온 제주인과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혹은 타 지역에 있는 제주인과의 네트워크에 의해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재일제주인이 새롭게 유입하는 제주인을 위해 일과 숙박을 직접 구해주는 경우는 감소하고 일본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진언씨는 “오사카에 재일교포 친척이 상당히 많다”고 했으나, 결코 가깝지 않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언니의 시아버지인 교포’의 협

조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리 약속을 하고 일본에 입국했다. 그 후 ‘단기체재비자’로 제주도와 고토부키쵸를 왕래하던 그는 비자 재발행을 위해 제주도에 돌아가서 다시 고토부키쵸로 돌아올 때마다 제주인들을 함께 데려왔다.

여기 88년 이후 90년 초까지는 여기 방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 세 사람, 네 사람 붙어 잤어요. 한국 사람이 꼭 잤어요. 외국인도 꼭 차니까. 지금 거짓말 아니고,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면 나를 따라 (일본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 부탁해가 지고 우리 형님 데려와 주세요. 하고 부탁하니까. ... 그때 오는데, 리무진 버스에서 내리는데, 택시를 타고 여기를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운전수한테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내려주세요. 부탁을 하고. 방을 못 빌리니까. 방을 내버리고 가니까, 한국 가는 동안 몇 개월 있다가 오는데 방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다 방이 없어. 그럼 한 사람씩 붙이는 거야. 오는 사람들은 친척들한테 붙여 버리고, 내 친척들 사람 둘이는 여자들인데, 여자만 재워주고. 난 옥상에서 자거나, 아는 사람한테 붙어서 자거나.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 [김진언, 2008/10/25]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일본에 가는 것이 붐이었다고 했다.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의 구체적인 장소로 고토부키쵸가 제주인에게 알려졌다. 그것이 큰 흐름을 만들어 고토부키쵸의 제주인 인구는 단 시일 내에 불어나 1990년대 전반에는 고토부키쵸 인구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sup>70)</sup>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 출신 노동자 한우선씨(1954년생, 전라남도 남성(도항 전까지 서울거주), 1990년 도일, 초과체재, 1996년부터 고토부키쵸 거주)의 이야기에서 제주인의 이주과정의 독자성을 알 수 있다.

나는 그랬지. 제주도는 그런 게 없었던 말이야. 제주도사람은 그 당시에 계속 사람이 들락날락 했었으니까, 다 눈치로 위치를 안단 말이야. 서류만 만들어서 들어온단 말이야. 서울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지.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야. 브로커 말만 듣고 오는거라. 제주도 사람 여기 올 때, 돈 한 푼도 안들이고 비행기값만 들고 온단 말이야. 센터[고토부키쵸 종합노동복지회관 앞 공터와 그 주변을 가리킴]에서 매일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러 간다. 그렇게

70) 고토부키생활관의 직원이자 1970년대부터 고토부키에서 활동해온 K씨의 인터뷰에서 발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서울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일본 가면 돈 많이 번다. 취직 자리 소개 시켜주겠다. 그렇게 커미션을 받는거라. 그렇게 데려다만 주면 그 사람들은 가는거라.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서 조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하다가 (전철역에) 가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서로 이야기 하다 보면은 나는 얼마 받는데 딴 사람은 얼마 받는다. 우리는 언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언제 와라. 그렇게 이야길 해주면은 서울 사람들은 좀 일하다가 이쪽(이쪽)으로 와버린단 말이야. 돈 많이 주는 데로 옮긴단 말이야. <고토부키초로 온단 말씀?> 아니, 고토부키초가 아니라 따른 데로. 서울사람들은 ... 제주도 사람들은 거의 요코하마 고토부키초로 (들어오지). 딴 데[타 지역] 사람들은 이 고토부키초를 잘 안 오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다른 데서 조금 (일)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가지고 인건비 많이 받고, 고토부키 쪽으로 온단 말이야.[한우선, 2009/07/02]

한우선씨는 자신의 이주과정과 비교하면서, 제주인들이 타 지역 출신자보다 이주과정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제주인들은 자주 왕래하고 있었기에 이주와 관계되는 정보가 좀 더 용이하게 소통되었기 때문에 손쉽게 관련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한우선씨와의 인터뷰에서, 인맥과 정보를 가지고 있던 제주인들이 고토부키초에서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토부키초로의 제주도 및 타 지역 출신의 한국인들의 이주 과정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맥 속에서 이주노동이 선택 되어져 왔음이 시사된다. 사회적 상황과 개인들의 다양한 선택, 의도, 의미부여가 혼재된 가운데 이동하는 주체들은 이동과정 속에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 행동해간다. 이러한 개인의 전략성은 이주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때 더욱 선명해진다.

#### IV. 한국인 오야카타 중심의 취업구조: 에스닉 커뮤니티의 선별적 생존전략

요세바 노동자는 테하이시(手配師) 혹은 님푸다시(人夫出し)라 불리는 노동력알선업자로부터 일을 얻는다. 그들의 취업형태는 아침에 고용되어

저녁에 임금을 받는 일용 즉, 현금형 취업(요세바 노동자의 기본적인 취업형태)와, 일정 기일을 정해서 고용되는 기간고용 즉 계약형 취업이 있다. 기간고용의 경우 자신의 거처(예를 들어, 간이숙박소)에서 현장까지 직접 다니는 직행형 취업과 님푸다시의 함바(人夫出し飯場)와 공사현장의 함바, 또는 현장근처 숙박업소에서 머물면서 일하는 출장형 취업이 있다. 요세바 노동자의 취업상황은 기간고용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이 일용노동이기 때문에, 취업의 불규칙성, 임시성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그 결과 생활의 하위성과 불안정성도 피할 수 없다.<sup>71)</sup> 고토부키초에 유입된 한국인노동자도 요세바의 취업구조에 수렴되어 갔다.<sup>72)</sup> 고토부키초의 한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테하이시의 역할을 하는 ‘한국인 오야카타 [십장]’ 밑에 재편성되었는데, 김진언씨는 ‘한국인 오야카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교포가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 오야카타라는 게, 뭐냐면.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몇 사람 불러 와라고 하면 책임져서 (인원수들) 만들어주는 것을 오야카타라고 한다. 오야카타도 일하고. (돈 더 받느냐?) 그건 회사 나름이다. 다 다르니까. 대부분 제주 사람이지. 먼저 들어와서 터전을 잡으니까. 그래서 바톤을 이어주는 거라.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자기랑 친한 사람들에게 물려주게 되지. [김진언, 2009/07/02]

김진언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 오야카타’라고 불리는 압도적 다수가 제주인이다. 단, ‘일본인 오야카타’<sup>73)</sup>와 비교해서 ‘한국인 오야카타’라고 불러 졌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주인 오야

71) 青木 앞의 책, 2000, 30쪽.

72) 한국의 건설일용근로자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용직·임시직 형태의 고용 현실 속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일거리를 확보하여 근로일수를 늘려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용직노동자의 당면과제이며, 이들의 생존전략은 자신의 친분이나 안면 등의 인맥을 통해서 일거리를 찾고 작업현장의 동료들과 구직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병은·장충권, 『‘노가다’의 사회자본 형성과 한계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연구』 12, 2006, 10쪽). 요세바의 취업형태는 한국의 일용직·임시직 취업형태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73) ‘일본인 오야카타’는 오야카타와 그 밑에 고용된 노동자 사이의 ‘도제적 관계’가 특징을 이룬다.

카타’였다.<sup>74)</sup> ‘제주인 오야카타’는 1980년대 후반의 제주인의 고토부키초에의 대량유입이 있기 이전에 밀항으로 들어와 이른 시기에 고토부키초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요세바와 그 주변 노동시장에 대해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고토부키초에서의 사회자본<sup>75)</sup>은 그들로 하여금 기득권과 우월한 지위를 점유할 수 있게 했다.<sup>76)</sup> 이 우월한 지위는 금전을 매개로 하여 이어져 갔다.

한편 ‘한국인 오야카타’와 그에게 고용되는 한국인노동자와의 관계는 고주원씨(1958년생, 제주도남성, 1991년 도향, 2008년 강제송환)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고향 선배로부터 고토부키초를 알게 된 고주원씨는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고토부키초로 왔다. 그는 고토부키초에서 ‘한국인 오야카타’를 하고 있던 중학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함께 일을 하러 가게 된다.

내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하루 가고 키마리[여기서는 정기적으로 일나가는 것을 뜻함]도 안하고, 하루 갔는데, 그 다음날, 나한테 아는 체도 안하는거라. 그것도 중학교 동창인데도 왜냐면 왜 그러냐고 하니깐 옆 사람들이 야 너 돌아왔을 때 깡맥주[깡맥주]라도 하나 사줬냐 그러는거라. 무슨 깡맥주 같은 소리 하느냐고 키마리도 아니고 하루 가가지고, 담날도 거기 가기로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 오야카타, 인부다시[님부다시]해서. 첫날 하루 가서 올 때 깡맥주라도 하나 사줘버렸으면 되었을껀디, 난 그 과정보도 몰랐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예요?> 응, 다 그래. 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또 데려가. 고토부키초에서는 다 그래. <한국에서 말하는, 와이로, 촌지 이런 걸 조금씩 계속 밀어줘야?> 밀어 넣어주면 계속 가고. 한 3개월 정도 되어버리면, 이 돌대가리들은, 일을 좀 알고 할 만하면 찢라 버린다고 ... 짜르고 새 사람 집어 넣어버리고.

- 
- 74) 현시점에서는 고토부키초의 제주인을 포함한 한국인 전체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제주인 오야카타’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출신의 ‘한국인 오야카타’도 생겨났다. 고토부키초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토부키초의 취업구조와 네트워크에 익숙해지면서 타 지역 출신의 한국인의 입지도 굳어졌다.
- 75) 여기서 사회자본이란 연결망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일정한 자산이나 능력을 확보하게 해 주는 ‘관계’자본을 가리킨다(정병은·장충권, 앞의 책, 2006:11쪽).
- 76) “모든 연결망이 자동적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뢰, 호혜성의 규범, 의무와 기대, 감정의 공유 등으로 나타난다”(정병은·장충권, 앞의 책, 2006, 13쪽).

회사는 굉장히 싫어하지. 일을 할 만하면 새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소개비 안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소개비를 줘야 돼. 여자든, 남자든. <얼마?> 5만 엔. 3개월에 한 번씩 인부다시한테 5만 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한 3년 하다 보니 어찌어찌 해서 유니온도 알게 되고, 오야지한테 벗어 붙고, 직접 계약하고 (직장에) 들어가 버렸지. <아저씨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3개월에 5만 엔씩 내고?> 고토부키초는 다 그래. [고주원, 2009/08/08]

고주원씨는 중학교 동창생인 ‘한국인 오야카타’와의 관계를 처음에는 고향에서처럼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일 알선과 교환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업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것을 ‘신뢰’라는 개념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고주원씨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품고 있었던 ‘신뢰’는 고향에서의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믿음이었다. 이것에 대해, 중학교 동창생이 고주원씨에 대해 품고 있던 ‘신뢰’, 곧 고토부키초에서의 생활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77)</sup> 그것은 자신이 제주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토부키초라는 세계의 질서였다. 그 후 고주원씨는 친척과 3년간 ‘뺨일’을 하러 가게 된다. 그곳에서의 근무를 위해서 그 친척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개월에 5만원씩을 지불했다. 아무리 인척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토부키초에서 일을 알선 받을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고토부키초의 규칙이었다. 자신들 보다 먼저 고토부키초에 들어와서 일본인과 취업인맥을 형성하고 있던 ‘한국인 오야카타’들에게 금전을 지불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취업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금전을 매개로 한 일자리 알선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취업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방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주원씨의 경우는 일 수원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과 ‘유니온’의 조력으로 친척인 ‘한국인 오야카타’와는 결별하여 직장에는 직접고용 상태로 일할 수 있었다. 고주원씨는 2008년 5월의 어느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통과하던 츠루미(鶴見驛)역에서 단속 당할 때까지 15년 이상 계속 같은 직장에

77) 정병은·장충권, 앞의 책, 2006, 13쪽.

서 일했다. 한편 고주원씨의 부인 부희영씨(1960년생, 제주도여성, 1991년 도향, 2000 자진귀국)는 “깡패수준의 무허가 직업소개소”라는 표현으로 고토부키초를 묘사했다. 1994년경 친구의 소개로 이시카와초역(石川町驛) 앞에 있는 러브호텔[모텔]에 취직하게 되자 야쿠자와 동거중인 제주도여성이 부희영씨에게 “이 곳은 자신의 관할권 밑이고 자기 허락 없이 이 러브호텔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소개비로 명목으로 6개월에 3만 엔씩 상납하도록”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호텔주인에게 말을 하여, 해고시키도록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자신이 야쿠자와 연결되어있다면서 협박을 해 왔다. 그래서 그 옹포리여자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 [부희영, 2009/08/18]

남편 고주원씨는 ‘한국인 오야카타’와의 관계를 청산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부희영씨의 경우는 실제로 일자리를 알선 받지 않았어도 고토부키초 부근의 직장에서 ‘옹포리여자’의 영역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있었다. 고주원씨의 경우는 직장이 고토부키초의 외부에 있었으며 한국인노동자가 적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나가는 것이 가능했으나, 부희영씨의 경우는 일과 생활의 영역이 중첩되는 고토부키초에서 얼굴을 맞대며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부희영씨는 ‘옹포리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했던 ‘소개비’를 고토부키초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주민세’로서 납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 후 부희영씨는 다른 러브호텔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옹포리여자’에게 소개비 지불을 그만두게 된다.

이 사례는 미등록 체류자인 한국인이 고토부키초에서 살아가기 위한, 타협과 극복 그리고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생활전략을 잘 나타내준다. 이런 상황은 제주인 내부에서 자주 일어났다. 임복수씨(1966년생, 충청도남성, 1988년 도향, 1993년 자진귀국)는 타 지역 출신 한국인들은 이러한 취업구조에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거 없었지. 친하면은 대인관계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



어요. 그 사람들은 딱 뭉쳐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테두리에서 그 사람들만 일을 나가요. 다른 지방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 제주도 사람만 가요. 고토부키초에서 제주도 사람이랑 육지사람이랑 많이 구분이 되어 있었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테두리에서 움직이니까. [임복수, 2009/08/20]

고토부키초에서 생활하고 있던 임복수씨는 제주인 커뮤니티에서의 빈번히 행해진 소개비 관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딱 뭉쳐있으니까”가 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인터뷰에서 제주인 커뮤니티의 폐쇄성은 ‘한국인 오야카타’시스템을 유지시키데 상당한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김진언씨는 제주인 중심의 취업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반이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일이란 게, 아무나 데려가서 일을 못합니다. 능숙해야 되고, 오야카타가 이 사람을 데려가 써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잠깐 써서 이는 게 아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만 둔게 아니라 IMF때문에 회사가 일을 못 맡아 가지고 안했는데, 내가 뱃일 책임 오야카타였어요. 우리 옆방에 같이 사는 사람을 데꼬 갔는데, 그 창구 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컨테이너에 있던 물건을 푸는 겁니다.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한국에서도 읍니다. 이게 하꼬(상자)에다가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부피라든지, 이 글자를 같은 글자로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는 차례를 하루 일해서 모르거든요. 쭉 하고 능숙하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일로 해서 배우지 못하면 이걸 이제 일을 데리고 다니려고 해도 쓰다보면 그 사람이 능숙해지고, 오야카타가 한국에 가 버리게 되면, 다음은 능숙한 그 사람. 그렇게 하다보면 제주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왔을 땐 육지분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여기 와가지고 내가 노가다 책임을 지고 사람을 데리고 다녀봤어요. 그때에 육지분이. 그 분이 아마, 전라북도 사람인가. 일을 데리고 간거야. 쉬는 시간에 저는예, 일본말을 배우기 전에 제주도말을 배워야 겠습니다(하선부 필자강조). 그 정도로 일같이 가면은 제주말을 써버리니까, 육지분들은 제주말 쓰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말 보다는 제주말을 배워야겠다는, 그 정도로 제주 사람이 많이 왔어요. 이제는 육지분들도 많이 있죠. 이젠 뼈까뼈간데(수가 비슷한데).  
【김진언, 2008/10/25】

김진언씨는 제주인과 함께 현장에 들어갈 경우,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이 상승하여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어 즉 제주도 방언이 통하지 않는 것은, 제주인과 타 지역 한국인과의 사이에 언어가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본인과의 현장에서는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일은 눈치로 하면 된다”는 이주노동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이 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과 타 지역 출신의 한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왜 언어가 장벽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고토부키초의 ‘한국인 오야카타 시스템’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의존관계가 필요했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언어에 의한 구분과 배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즉, 개인들의 과거를 알고 신분확인이 가능한 영역으로 제주인 커뮤니티에 취업과 생활을 집중시킴으로써 ‘한국인 오야카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78)</sup> 밀도 높은 폐쇄적인 에스닉 네트워크는 ‘약자들의 무기(weapons of the weak)’<sup>79)</sup>가 되어 ‘강한 유대의 강함(the strength of strong ties)’을 보여준다.<sup>80)</sup>

이젠 사람도 많이 없고, 한국 사람이면, 제주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왔다면 다 같이...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직도 텃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김진언, 2009/07/02]

김진언씨는 일본의 경기가 악화하고 제주인의 수가 감소하면서, 제주인 중심의 커뮤니티가 다른 지역 출신 한국인에게도 확대되었음을 지적했다. 일자리 확보와 다수의 제주인의 존재가 필요조건이었던 ‘한국인 오야카타 시스템’은 제주인 커뮤니티가 축소해감에 따라 전성기처럼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김진언씨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고토부키

78) ‘한국인오야카타’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생략했지만, 다음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79)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사회의 저변부에 위치하는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의 무기’로 일컬어지는 가족이나 친족의 혈연관계, 친구, 이웃 등 지연관계에 더욱 의존하면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대처한다(Scott, James C(1985), *Weapons of the Weak*, New Haven: Yale Univ Press; 정병은·장충권, 앞의 책, 2006, 12쪽 재인용).

80) 정병은·장충권, 앞의 책, 2006.

초라고 하더라도 그가 인터뷰를 하던 2009년 당시 고토부키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제주인임을 지적했다.<sup>81)</sup>

## V.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쵸로의 이주과정에서 부각된 에스닉 네트워크를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사회적 구조 속에서 고찰한 후, 고토부키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노동경험을 분석하여, 그 속에 독특한 취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그것을 ‘한국인 오야카타 시스템’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주로 제주인이 주축이 되는 취업알선 시스템으로 오야카타와 고용노동자 사이의 갈취, 소개비, 뇌물, 상납 등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표면적으로는 착취적인 시스템으로 보이지만<sup>82)</sup>, 본 연구의 필드워크 과정 중에 이 시스템이 단순히 억압과 착취로만 해석될 수 없는, 그들 사이의 고유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내적 질서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전을 매개로 한 ‘한국인 오야카타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축소판 혹은 노동유연화의 최저변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낮은 공간에서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질서이자, ‘법적 진공상태’에서의 생존전략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고토부키쵸로 유입된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 속으로 포섭되면서 새로운 이국의 공간에서 기존의 자신의 도덕, 가치관, 직업윤리 등이 재배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법적 진공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합법적

8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고토부키쵸는 인력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노동자가 사라진 간이숙박소에는 고령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아 가고 있다. 고토부키쵸의 일본인활동가 W씨는 이러한 현 상황을 ‘노동자의 마을이 복지의 마을로 변했다’고 표현했다.

82) 필자와의 인터뷰 도중에 ‘한국인 오야카타’의 월수입을 계산해 본 한우선씨는 “오야카타의 월수입이 한창 때에는 한국돈으로 삼천만원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액의 정확도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 정도로 ‘한국인 오야카타’의 수입은 높게 상정되었고, 그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인 존재로 생활할 때의 관념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불합리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은 불안정한 현실의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혹은 마땅히 지불해야할 비용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 결과 에스닉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고토부키초라는 공간이 개발된다. 이러한 특색이 고토부키초 고유의 ‘계속적인 이주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성립시켰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 제주인들을 중심으로 에스닉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에스닉 커뮤니티는 개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전략과 교지가 충돌하는 공간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고토부키초의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은 거대한 사회시스템으로부터 차별받는 현실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에스닉 커뮤니티의 내실을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 제한된 사회적 자원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개개인의 생존전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면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사회구조를 형성시켰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며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고토부키초라는 일본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역사성을 담지한 장소를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에스닉 네트워크가 형성해내는 사회적 관계와 하나의 삶의 방식인 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 요세마 지역의 구조, 제주도 네트워크의 응집성과 변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노동력 이동과정 등의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주경험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주/이동을 계기로 사회구조적으로 주변부로 규정되는 공간인 고토부키초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제한적인 삶의 형태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들에는 차별과 배제라는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대항적 실천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 ‘불법성’을 지닌 이주경험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 참고문헌

- 김민환, 「동아시아 변경 섬의 지정학과 냉전체제 성립기 국가폭력 발생의 구조」, 『탐라문화』 46, 2014.
-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 4. 3의 담론정치」,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1998.
- 조성윤, 「제주도에 유입된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탐라문화』 27, 2005.
- 양인실, 「일본 TV 영상물의 재일제주인 표상」, 『일본비평』 8, 2013.
- 유철인,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33(2), 2000.
- 이영민,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의 지방노동시장 특성과 지역정체성 탐색: 한인 불법체류노동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3), 2007.
- 정병은·장충권, 「‘노가다’의 사회자본 형성과 한계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연구』 12, 2006.
- 정진성, 「재일한국인 뉴커머 형성과정과 집주지역의 특징 - 오쿠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0, 2011.
- 정혜경, 「일제 강점기 ‘조선부락’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한인의 역사(하)』 재외동포사총서11, 2010.
- 조현미, 「재일동포의 집주지역 형성과 민족 정체성의 변화 -요세마 고도부키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5(1), 2000.
- Appadurai, Arjun(1996), *Modernity at Lar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알지쥬ン·아바데유라이, 門田健一譯, 『さまよえる近代』, 平凡社, 2004)
- Sassen, Saskia(1988), *The Mobility of Labour and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James C(1985), *Weapons of the Wea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青木秀男, 「寄せ場は何處へ」, 青木秀男編著, 『場所をあけろ! 寄せ場/ホームレスの社會學』, 松頼社, 1999.
- \_\_\_\_\_, 『現代日本の都市下層-寄せ場と野宿者と外國人労働者』, 明石書店, 2000.
- 伊地知紀子, 『生活世界の創造と實踐-韓國·濟州島の生活誌から』, 御茶ノ水書房, 2000.

- 梶村秀樹, 「定住外国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思想』 734, 1985.
- 玄武岩, 「密航・大村收容所・濟州島－大阪と濟州島を結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 『現代思想』 35(7), 2007.
- 高鮮徽,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義』, 明石書店, 1998.
- 駒井洋, 「外国人労働者問題の現段階」, 『寄せ場』 11, 1998.
- 佐久間孝正, 「変貌する他民族國家イギリス－「多文化」と「多分化」にゆれる教育」, 明石書店, 1998.
- 芹澤勇, 『ドヤ街の發生と形成－横浜埋地（西部の街）について』, 横浜市總務局行政部調査室, 1967.
- 西澤晃彦, 『隠蔽された外部－都市下層のエスノグラフィ』, 彩流社, 1995.
- 樋口直人, 「個人戦略とエスニシティ」, 『一橋論叢』 121(2), 1999.
- \_\_\_\_\_, 「國際移民の組織的基盤－移住システム論の意義と課題」, 『ソシオロジ』 47(2), 2002.
- 文京洙, 『濟州島現代史－公共圏の死滅と再生』, 新幹社, 2005.
- 栢田一二, 『栢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1976.
- 山本薫子, 「國境を超えた『困い込み』－移民の下層化を促し、正当化するロジックの検討に向けて」, 狩谷あゆみ編, 『不埒な希望－ホームレス/寄せ場をめぐる社會學』, 松籟社, 2006.
- \_\_\_\_\_, 『横浜・壽町と外国人－グローバル化する大都市インナーエリア』, 福村出版, 2008.

Abstract

## Ethnic Network and Labor Experience on Migration to Japan: Focusing Korean Undocumented Workers in Kotobuki Yokohama

Lee, Hey-Jin\*

This article is about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orean undocumented workers from the late 1980 to 2000s in Kotobuki Yokohama, Japan where is for day laborer market. Most early settlers were from Jeju island, Korea and they took advantage of the regionalism and kinship to find work in Kotobuki. Jeju island has been recognized as a marginal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ed its indigenous regional character compared to others due to its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Korea. It resulted in that people from Juju become majority power in Kotobuki, so that they have quite different social position. Furthermore it led Jeju people to seize hegemony.

This study explains migration process, historical situation and social atmosphere which allowed Juju people who had regarded as the margins of society to come to Japan. Also it analyzes the structure of Korean employment in Kotobuki from late 1980s to 2000s. To consider how they make and keep the relation with the place as an unstable status,

---

\*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Korean, especially Jeju community and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undocumented workers.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it brings out the social implication of ethnic community in structural constraints as presenting Kotobuki's unique character of social network which allows continuous migration and living.

Key Words : migration, Jeju, Japan, Korean Undocumented workers, Kotobuki, Labor, Employment, Ethnic network, Ethnic community, Ethnicity.

교신 : **이혜진**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 2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E-mail : portsait@gmail.com)

논문투고일 2014. 08. 31.

심사완료일 2014. 10. 03.

게재확정일 2014. 10. 24.